

MOST 과학기술부	이 資料는 '04.10.27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	보도자료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 ☐	생산일자	'04. 10. 26 (화)
		매 수	총 8 매
	제공	과학기술부 공보관실	

새로 출범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큰기대 - 과학기술 전문가 및 공무원 등 대상 여론조사 결과 -

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새로 출범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과학기술부가 (주)코리아 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반국민 200명, 산·학·연 분야 전문가 1200명, 공무원 400명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인 70.2%, 전문가 84.6%, 공무원 77.0%로 '차이가 없을 것이다' (일반인 28.8%, 전문가 14.7%, 공무원 22.1%)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성공적 추진을 기대

일반국민들(42.8%)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전문가(38.4%)와 공무원 (35.4%)은 과학 기술정책의 기획·조정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개발관련 정책 추진이 필수

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(70.2%)와 공무원(60.4%)은 과학기술개발관련 정책 추진에 비중을 두는 반면 일반국민(47.6%)은 가시적인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가장 높게 손꼽아 전문가와 공무원과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.

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할 업무의 우선순위

출범이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일반인(35.6%)과 전문가(40.7%)의 경우 '기술인력 수급 전망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'을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했으며, 공무원(33.0%)의 경우는 '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배분·조정'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. 또한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통치권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및 경력

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일반인의 경우 창의력(42.8%), 전문성(37.5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전문가와 공무원은 조정능력(38.2%, 35.9%), 전문성(36.1%, 31.6%) 등의 순이었다.

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충원할 민간전문가는 일반인(38.9%), 전문가(39.1%), 공무원(44.7%) 구분없이 산업계 출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.

■ 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

과학기술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요자 지향적인 과학기술행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.

구체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중점 추진업무로 선정된 ‘기술인력 수급 전망 등 과학 기술인력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’과 ‘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 설정, 예산배분·조정’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,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

※ 붙임 :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

□ 문의 :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준비기획단 고은영(02-2110-3513)

붙임 :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

1. 조사 목적

-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들의 과학기술 혁신본부에 대한 인식수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해 바라는 사항을 조사하여 혁신본부의 바람직한 역할수행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
2. 조사 개요

- 기간 : 2004년 9월 23일 ~ 10월 5일
- 대상 : 산·학·연의 과학기술계 및 공무원, 일반인등 1800명
- 조사방법 : 전화조사 및 이메일조사
- 조사기관 : (주)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
- 표본오차 : 95% 신뢰 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$\pm 2.3\%$

3. 조사 결과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인지도

-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대해 공무원(54.2%)이 전문가(49.3%)나 일반인(4.8%)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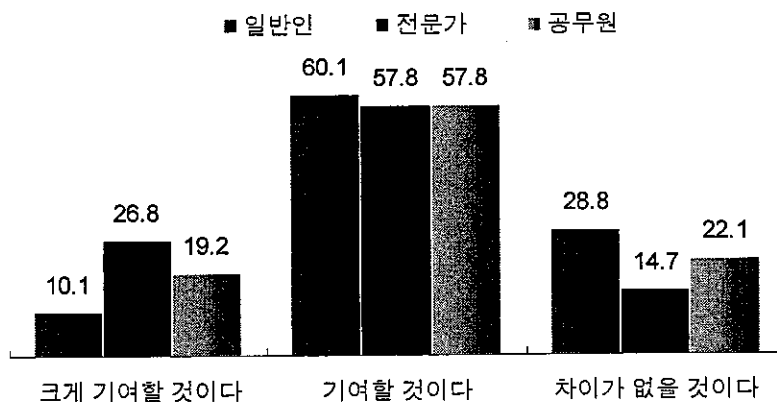
(%)

구 분	일반인	전문가	분 야			공무원	부 처			
			학계	연구기관	산업계		과기부	산자부	정통부	기타
알고 있음(매우+대체로)	4.8	49.3	49.2	60.6	34.5	54.2	100	63.5	60.5	33.7
모름(잘 모름+전혀 모름)	85.6	36.0	32.6	29.7	50.9	35.2	-	22.2	26.3	54.2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정도

-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기대가 일반인 70.2%, 전문가 84.8%, 공무원 77.0%로 구분 없이 모두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큼.

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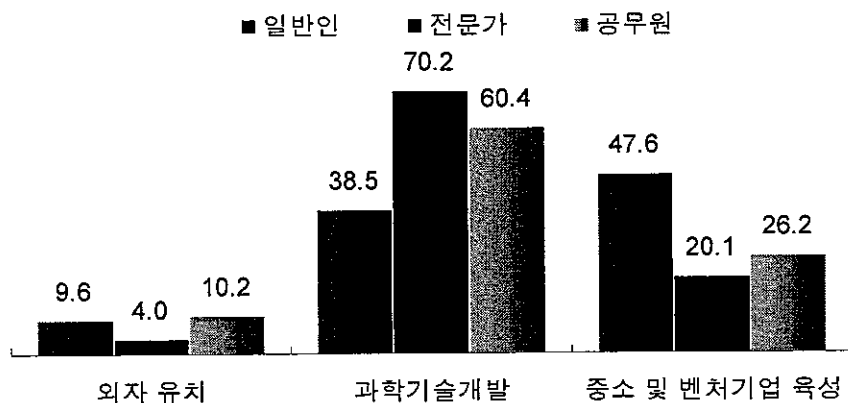
□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거는 기대효과

- 일반국민들(42.8%)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 반면 전문가(38.4%)와 공무원(35.4%)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·조정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큼.

□ 국민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

- 전문가(70.2%)와 공무원(60.4%)은 과학기술개발 관련 정책 추진에 비중을 두는 반면, 일반국민(47.6%)은 가시적 효과가 큰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둬.

(%)

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할 업무의 우선순위

- 일반인과 전문가의 경우 1순위에서 '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'이 각각 35.6%, 40.7%로 가장 높았으며, 공무원의 경우는 '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배분·조정'이 33.0% 최우선 순위로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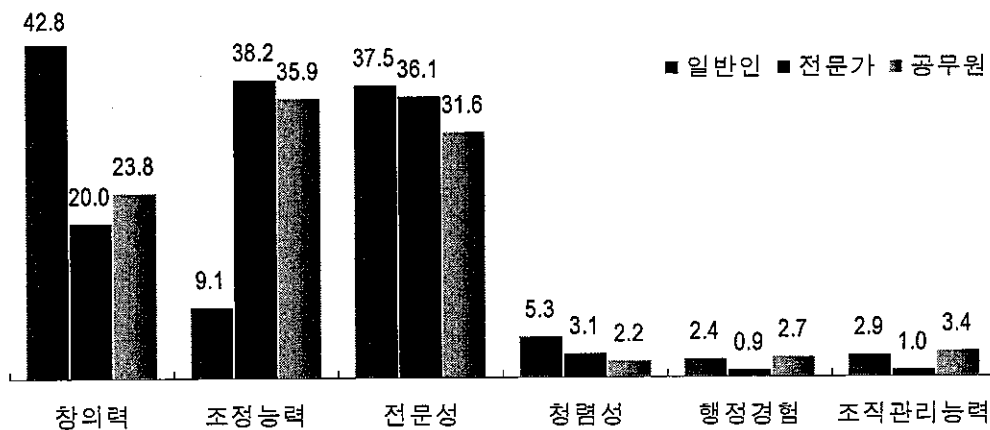
□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

-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일반인 58.7%, 전문가 36.8%가 '전문인력 확보'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, 공무원의 경우 35.9%가 통치권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.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

- 일반인의 42.8%가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원에게 필요한 자질로 창의력을 우선적으로 뽑은 반면, 전문가와 공무원은 조정능력이 38.2%, 35.9%, 전문성이 36.1%, 31.6%순으로 중요한 자질이라고 응답함.

(1순위, %)



□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충원할 민간전문가의 경력 및 민간전문가 근무의향

- 산업계 출신의 민간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인 38.9%, 전문가 39.1%, 공무원 44.7%로 구분 없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☐ 과학기술혁신본부 근무/추천의향

-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근무하거나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(53.8%)가 공무원(37.1%)보다 높게 나타남. 과기부의 69.1%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근무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, 산자부 25.4%, 정통부 25.4%, 기타부서는 29.3%로 적극적이지 않음.

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사제도

- 학계(37.4%)와 연구기관(42.4)% 종사자는 파견근무를 가장 선호, 산업계 종사자(34.9)%는 공채를 통한 정규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무원(67.7%)의 경우는 일정기간 파견근무 종료 후 본인이 희망하는 소속으로 변경을 원함.

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

-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진취적이며, 혁신적인 새로운 환경조성이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45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36.2%가 개방적인 사고의 도입에 따른 업무 방식 변경을 지적하고 있음